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 왕이신 하나님

(시편 93:1-5)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며 하나님과 관계있는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시편 93편은 신정(神政)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언급하는 시입니다. 신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부를 말하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 표현된 단어입니다. 신정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관계에서 다른 제도들보다 크게 다른 제도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시작됩니다. 신정제도의 궁극적 완성은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현재와 오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요세푸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는 것을 뜻했다면 시편은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 1.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자신의 첫 번째 특성은 위엄입니다. '위엄'은 신구약 성경 속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주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하나님의 거룩, 통치와 연결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능력의 위엄인 것입니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1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파괴시킬 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주는 변하고 인간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항상 같고 어디서나 영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계 4:8)는 천사의 외침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한대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분인 것을 의미합니다.

### 2. 파도치는 세상

1-2절에서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할 때 시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보좌 때문에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은 변하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니이다”(3절).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을 다스리고 또는 국가들이나 세상 역사를 다스린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세계도 견고히 세우신다는 1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연세계는 계속적으로 소동하나 하나님은 이 변화를 다스리십니다.

구약에서 쉽 없는 파도는 이방나라들을 상징합니다(사 17:12,

렘 6:23, 렘 50:42). 이처럼 바다를 이방나라들의 상징으로 본다면 둘째 연은 모든 역사적 발전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린다는 단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실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왕이십니다.

### 3.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성격

하나님 나라는 율법의 나라이고 또한 거룩함의 나라입니다.

#### (1) 법령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권능의 통치일 뿐 아니라 법의 통치이기도 합니다. 5절의 주의 증거들, 곧 법령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의 법령은 주의 명령으로 모든 법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며 그것은 섭리하시는 다스림입니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5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으려면 그의 법령을 알아야 하고 그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교회를 섭리적 인도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자기 교회의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성경을 가르치심으로 하시며 또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계 11:15)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이신 줄 알고 난 후 예수님은 그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2) 거룩함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법대로 하시면서 또한 거룩함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며 하나님과 관계있는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그는 거룩한 백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벧전 2:9).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제10대 집사 · 제9대 권사 각 61명 피택되다

## 5월31일(토) 오전6시 501호에서 교육시작

지난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 제10대 집사 · 제9대 권사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투표결과 집사 61명, 권사 61명이 각각 피택되었다. 이번에 피택된 이들은 5월31일(토)부터 시작되는

15주의 교육을 마친 후 11월23일 교회설립기념주일에 임직을 받게 된다. 피택자들이 연단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주님의 종으로 서기를 기도한다. 자세한 명단은 4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 2008년 홍해작전 임박

## 6월6일(금) 새벽 5시 - 본당에서

2008년 홍해작전 개전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홍해작전은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오 10:10하)를 주제로, '자유, 평화, 정의의 나라를 세우는 신앙을 계대하자!'를 표어로 삼아 6월6일(금)부터 6월25일(수)까지 20일간 매일 새벽5시부터 6시까지 20일간 계속된다.

특히 이번 홍해작전은 주제를 세분하여 세 분의 강사를 모신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되는 바가 크다.

(1) '자유' (6월6일~11일)-김철홍 교수(장신대, 신약학, 서울대, 장신대신대원, 유니온신대, 풀러신대원 Ph.D)

(2) '평화' (6월12일~18일)-허주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 신약학, 한국외대, 미국WTS신대원, 영국쉐필드대 Ph.D),

(3) '정의' (6월 19~25일)-이승구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총신대, 서울대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 영국 세인트 앤드류스대 Ph.D) 등 3명의 강사진이 매일 새벽 새로운 말씀으로 영혼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앞에 놓인 홍해, 특별히 아가페 타운 건설을 주님께 내어놓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기 바란다.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 제16차 KIMCHI 신학세미나 은혜롭게 진행돼

## 5월28일(수) 오후7시 본당에서 폐회

지난 5월19일(월) 은혜 중에 열린 제 16차 KIMCHI 신학세미나가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귀한 사명을 받아 우리교회에 온 프랑스 교계 지도자 32명은 매일, 새벽 5시30분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각 분야별 권위있는 강사로 구성된 주제별 강의를 듣고 토의하며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

우리교회는 이들이 새롭게 되도록 김치세미나 기간 중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이며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28일(수)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게 된다. 금주 중에는 오늘, 주일학교를 방문하여 젊은이들을 향한 신앙교육의 현장을 돌아보고 아직 남아있는 강의와 베델하우스에서 열리는 가든파티에서 프랑스 대사를 비롯한 국내외 교계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28일(수) 오후 7시 본당에서 폐회 예배를 마지막으로 29일(목)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세계 선교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땀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요구된다.

# 전도학교 제 33기 개강

주일반 6월 1일 오후 1시 30분 - 607호  
수요반 6월 4일 오후 8시 15분 - 609호

제 33기 전도학교가 열린다. 33기는 주일에 바쁜 사역으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존 주일반 외에 수요야간반 과정을 신설한다.

주일반은 6월1일 오후 1시 30분(607호) 수요반은 6월4일 오후 8시 15분(603호)에 개강한다.

전도의 이론과 실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하기를 원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 미리암 여성 합창단 모집

오디션: 6월10일(화) 오후 1시 - 503호

미리암여성합창단은 주 2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연습을 실시하며 정기 연주와 지방 및 해외 공연 그리고 병원과 구치소 방문 연주 외에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형태의 찬양 순서에 참여하게 된다.

- Audition : 6월10일(화) 오후 1시에 503호
- 선발인원: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각 8명
- 대상 : 50세 이전 여성
- 오디션 곡목 : 성가곡, 한국가곡, 찬송가 중 택일
- 지원서 : 사무국에서 배부

# 서울교회 아가페타운(Agape Town) 건립을 위한 기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주님!

1.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장애우와 노약자를 돌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오니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2. 주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사랑의 집 건립을 소원했는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사랑의 마을을 허락 하시오니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3.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물질도 정성과 힘을 다해 바치겠사오니 크고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소서.
4. 물질이 부족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는 핑계가 없도록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소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하소서.
5. 아가페타운 건설하여 개인 가정 국가 사회에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방해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약한자 구제

#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 주님이 허락하신 아가페타운

### 김시환 집사(제2스데반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이 시대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설립케 하신 우리 서울교회, 지난 17년의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순종하는 종들을 통하여 주신 비전을 이루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빈약한자 구제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랫동안 '사랑의 집' 건립을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온 이 땅의 소외된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선한 사업인 아가페 타운의 부지를 구입하게 하였고 본격적으로 건설에 들어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난 5월 12일 우리교회 제2 스데반회 회원부부 및 가족들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의 아가페 타운을 방문, 10,227평 부지와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종합 교육복지시설과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그리고



연수시설을 건립하여 종합복지타운-사랑의 마을로 새롭게 탄생될 현장을 돌아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넓고 아름다운 땅에, 아가페 타운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건설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가페 타운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현장으로, 장애인 복지와 교육 및 노인복지에 새로운 지평을 세우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현장에서 그 비전을 더 깊이, 크게, 구체적으로 그리던 참석자

들의 표정에 기쁨과 감격 그리고 행복과 감사가 파도처럼 물결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였습니다.

이 같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은 우리 교회의 각종 사업들의 중요한 성공요소 중의 하나로 평가됩니다.

우리의 예배당 건축이 벽돌이 아닌 기도로, 기술이 아닌 비전으로 지어졌고 물질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 졌음을 이미 체험하였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타운 건설이라는 비전을 오직 겸손히 받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 또 감사 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 나의 하나님

#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 사랑하는 아내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결혼을 했냐고 물어보았지요.^.^

우리 두사람은 서울교회에서 이복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결혼하게 되었지요. 세상의 조건이나 외모가 아닌 오직 말씀 하나로 그렇게 서로를 하나되게 하셨지요!

20대 후반부터 사업체 오너가 되어 나름대로 사업한다고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사업이 잘 될때는 더 크게하려고 외국을 오가며 바빴고, 침체기에 들어서서는 헤어나려고 바빴었지요. 바쁘다는 핑계로 두 어린아이를 잘 돌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사이에 어느덧 10년이 지나 많은 것이 변해버렸네요. 이런 정신 없었던 나에게 조금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가정에 큰 소리 한번 나지 않도록 항상 지켜보아온 당신이 있어 난 늘 말없이 감사하답니다.

TV홈쇼핑 사업을 진행하던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난 당신의 기도를 잊지않고 있답니다. 오랜시간 투자해온 일이 결실이 맺히지 않아 힘들어할 때, 인간적인 노력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힘을 실어주었고, 가끔 한마디씩 말씀으로 권고해 줌으로 다시 한 번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으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새벽마다 무릎 꿇고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작정기도하며, 눈물이 나지 않을 때는 눈을 찔



러서라도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당신의 말에 우습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외닿는 간절함을 배우며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끔 자신을 보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매 주일 유아부를 가면 꼭 크고 작은 어린이들을 안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애를 매일 안고만 있나요? 그러면 키도 작은데 팔뚝만 굵어진다고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참..봉사도 진심으로 해야하구나!

내 아내이지만 저보다 백 번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말없이 조용히 믿음으로 봉사에 열심을 다하는 당신을 보며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의 동역자 정치은 드림

### 사랑하는 당신에게

세월은 참 빠르죠? 뒤를 돌아보면 아주 짧은 시간의 연속들이었다고만 여겨지던 일들이 마치 긴 터널의 끝에 서있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니 말이예요.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당신께 감사할 뿐입니다. 잘 빠지고 소심한 나의 모습도 넉넉히 받아주는 가슴 넓은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의 일에 함께 하자고 당신의 비전을 나에게 심어주고 기도하게 하고, 아이들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날 존중해주는 사랑 많은 당신. 신혼 때의 사랑의 열정은 엷어졌을지라도, 믿음과 신뢰를 더 깊이 심어준 그런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썼던 글귀를 기억하세요?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것은 그대의 온전한 때문이 아닙니다. 그대의 부족함, 그 안타까움이 있기에 나는 그대의 가슴에 스며들어 그대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것은 그대의 화려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대의 그늘, 그 아픔이 있기에 나는 그대의 가슴에 스며들어 그대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결혼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 또한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부족한 나의 돕는 배필이 되어 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동역자 김영연드림

제10대 집사 · 제9대 권사 피택자들

#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 집사



1.유권모 2.류종기 3.박찬성 4.최정인 5.주영도 6.김상태 7.배준길 8.유태서 9.신도섭 10.안홍희 11.양득춘  
 12.김장섭 13.류장렬 14.장인원 15.임병권 16.정찬주 17.한인진 18.김종철 19.이진구 20.김혜연 21.정창빈 22.백승갑 23.김영주  
 24.천기성 25.하태현 26.오교식 27.김상열 28.권혁달 29.신규철 30.임광호 31.김희석 32.인준홍 33.황연진 34.이희국 35.박길수  
 36.구정두 37.임선철 38.김민철2 39.백도환 40.김승록 41.김해수 42.이준호 43.조원섭 44.김태삼 45.김형상 46.박희래 47.변만중  
 48.정치은 49.김광민 50.허태호 51.김창훈 52.노제현 53.황병석 54.최승환 55.박광서 56.김영희 57.권오철 58.강진환 59.박영철  
 60.이건모 61.주영광

## 권사



1.김신영 2.박이선 3.이영주 4.남태영 5.김정애2 6.최정희 7.남상경 8.박현영 9.윤숙지 10.김정희 11.배정자  
 12.박정희 13.김숙연 14.정미연 15.이명희 16.김혜중 17.이신애 18.심명숙 19.이금순 20.노인숙 21.서순희 22.권기순 23.나상민  
 24.손성실 25.김점숙 26.김옥순 27.김유경 28.김영옥 29.홍승자 30.문승순 31.임인자 32.조숙자 33.이종틀 34.강영순 35.이옥심  
 36.윤혜련 37.백혜숙 38.윤복순 39.권영실 40.하 숙 41.윤영남 42.신영순 43.이정임 44.오은이 45.김홍두 46.고선옥 47.이민숙  
 48.김혜련 49.한난숙 50.김정두 51.최혜인 52.김남옥2 53.박정순 54.성순자 55.김영례 56.최 인 57.최금봉 58.신금전 59.김초일  
 60.조순엽 61.유종숙

2008 홍해작전을 앞두고

# 홍해작전 승리를 바라보며



### 민순구 장로 (홍해작전참모장)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국가의 정체성 위기, 정치의 오만과 독선에 의한 갈등, 도덕적 불감증, 경제의 어려움, 교육과 사회의 혼돈과 무질서 등 아주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자유와 평화, 정의에 뿌리를 둔 사회질서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킨 그 때를 생각해보라 요구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 우리는 여호와 앞

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 15:1-2)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원근 각처에서 진군나팔을 불며 교회에 모여 출애굽 때 위기를 극복한 모세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오늘 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심하여 조국의 안전과 민족의 번영, 그리고 서울교회의 사명과 개인과 가정의 비전, 직장과 사회의 문제점들을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고자 6월 6일 홍해작전 17번째 개전이 시작됩니다.

이번 2008년 홍해작전은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

라! -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하) 주제표어 아래 6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김철홍 교수(장신대), 허주 교수(아세아 연합 신학대), 이승구 교수(국제 신학대학원), 세분께서 각각 “자유, 평화, 정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죄의 회개와 고백을 통한 기도로써 이 시대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님들 모두가 홍해를 건너, 승리의 나팔을 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의 의와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 받는 종이 되길 바라며,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대 합니다.

천국시민양성

##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

‘성호야 커피가 너무 빨리 나온다. 15초 밖에 안 걸렸어’ 용인 청소년 쉼터에 특별한 교육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이 쉼터에는 가출한 청소년, 퇴학생들, 소외된 아이들이 자칭 사고 뭉치라는 여러 모양의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일주일마다 두 번씩 최지욱 성도를 선생님이 모시고 형님처럼, 아저씨처럼 함께 꿈꾸며 그 꿈을 이루어 가는 역동적인 교육현장이다.

그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최지욱 성도는 2006년 세계 바리스타 대회에서 라떼 부문에 세계2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대표급 바리스타(이태리어로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다.

최지욱 성도는 커피농장(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을 방문하면서 문화 시설이 전혀 없는 열악한 곳에서 함께 노동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어 주며 행복을 느끼는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신앙의 양식을 보게 되었다고...

나의 작은 기술이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쉼



터의 봉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비단 커피 바리스타의 기능뿐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가는 선배로서 변화되는 모습과 소망을 찾아가는 아이들이 무언가 되고 싶고, 찾고 싶고, 올라가고 싶은 열망을 보며 얼마나 기특하고 든든한지 동생을 지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더욱 보람이 된다고 겸손히 말하는 최지욱 성도의 마음은 5월의 꽃보다 더 아름답다.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중에도 그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격려하는 형 같은 청년 최지욱 성도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비전을 실천하는 문화 선교사-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추수하는 날에 열음냉수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최지욱 성도. 앞으로도 하늘 나라를 이땅에 이루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편집부)

## 사진으로 보는 캠퍼스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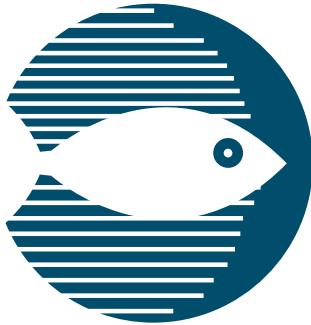
천국시민양성 - 대학부

# 로잔 International Leaders Meeting 서울에서 열린다 2009년 6월8일(월)-12일(금)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위원회 의장인 Doug Birdsall 목사는 지난 5월21일 로잔 International Leaders Meeting을 내년 6월8일부터 12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고 선언했다.

2년마다 열리는 (biennial meeting에는) 로잔 위원회 임원, 국제 지역 부총무들, 소그룹 위원회 위원들, 특별 위원회 위원들, 자문위원, 각국 의장, 각 대륙 의장, 원로교문들, 청년지도자들 그리고 로잔 3차 대회를 준비하는 speakers과 지도자 약 250명이 전 세계에서 참여케 된다.

한국 로잔 위원회와 아시아 로잔 위원회 의장인 이종윤 목사(서울교회)는 케이프타운에서 4,000명이 모일 로잔 3차대회의 16개월 전에 열리는 이 지도자 대회는 실제로 3차대회의 예행연습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 영적 수준과 IT 강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한국에서 이 대회를 가짐으로 로잔 3차대회에 활력을 얻으려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

이종윤 목사는 내년에 장로회 신학대학(총장 김중은)에서 이 대회가 열릴 것이라고 한다.

한국 로잔위원회는 IT 시설과 깊은 영성이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을 로잔 지도자대회 장소로 택

하는 것에 전적 동의를 하고 이를 국제 위원회에 제출하여 마침내 선언케 된 것이다.

장신대는 대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는 6월 전체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유치결정을 하기로 하였다.

로잔 International Leaders Meeting은 한국 로잔위원회와 김치(KIMCHI) 위원회가 주관한다.

##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MuAmici 성악 그룹을 초청하여 드린다. MuAmici는 음악을 뜻하는 Musica와 친구들을 뜻하는 이탈리아 Amici를 결합한 단어로써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라는 뜻이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프랑스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맞이하여 우리교회를 통한 한국과 프랑스의 교회 음악의 교류를 통한 은혜를 위해 불탄서 성가곡인 "장 라신의 기도" (G. Faure 작곡) 그리고 한국적인 교회음악 시편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지요" (이영조 작곡) 외에 1 곡으로 찬양 드린다. Soprano 이유주, 여영화, 이지연 Tenor: 이혁재, Baritone: 정동호, Piano:이현주, 신지영 선생이 수고한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30일(금) 총회 기독교 대학 교목수련회를 소집하고 주제 강연을 한다.
- 이사: · 이민화권사, 노문환장로, 장정화권사 가정 송파구 잠실5동 APT 516-906 (T, 413-5276)  
· 하인선 장로 남태순 권사 가정 강남구 역삼동 710 현대까르띠에 103-1201  
· 김규성 집사 정현숙 권사 가정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우림@ 103-1604
- 사업확장: (2교구)김준희 성도(김영호 집사, 박성금 권사 차남)-경희 PPT 체대입시학원 2호점(대치동 904-13 대창빌딩 지하) T. 569-4677
- 교역자 휴대전화 번호 변경:  
윤영국 목사: 010-8653-3751
- 주간식당봉사: 빌립선교회(5.25) 안드레선교회(6.1)
- 금주의 식사: 황남수 성도 진교숙 집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부모님은 튼튼한 버팀목

아버지 어머니! 저 민제입니다 요즘 공부하는 저와 형 신경써주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벌써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어머니 아버지께 진지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피땀 흘려 버신 돈을 모두 자식들에게 베푸시며 정작 아버지 어머니 필요하신 건 안하시는 마음 항상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주시고 도와주시는 마치 튼튼한 버팀목처럼 제 뒤에 계신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힘드시면 서도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큰 은혜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학교생활이 힘들어 짜증낼 때, 투덜댈 때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불리지 않은 게으른 종

처럼 되지 않기 위해, 예수님과 부모님을 위해 게으른 종이 아닌, 부지런한 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꿈을 이뤄내서 장차 큰 인물이 되어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직 배울게 많은 철부지 아들이지만 후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막내 이민제 올림 (고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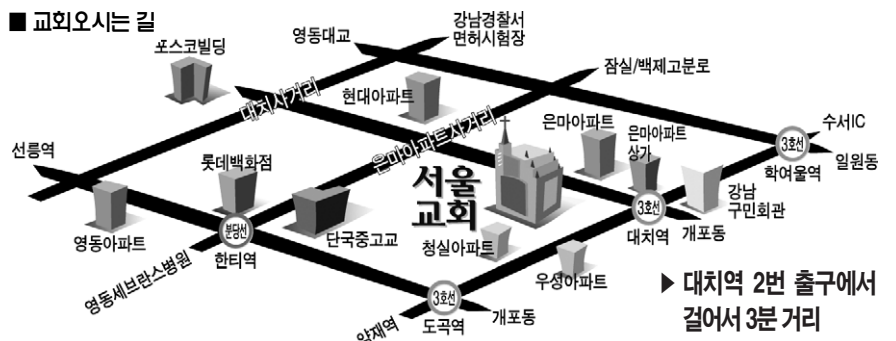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2. 아가페 타운 건설,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3. 33학기 목회자세미나, 16차 KIMCHI세미나 위하여
4. 6.6-25까지 열리는 홍해작전 승리를 위하여
5.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